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122호 진전사지삼층석탑



진전사지 3층석탑

이상국

전라도 무안 땅 가지산이
어느 날 그 형제들을 이끌고
설악산 아래 한 석탑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신라에서는 가지산을 본 사람이 없었다
가지산은 그 속에 절 한 채를 짓고
도의로 하여금 한 천년
받았없이 염불을 하게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 후 4백 년쯤 지나 어린 일면이
축발업의하고
둔전골 물소리처럼 흘러들어가는
나오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 6백 년은 흘렀을가
인민군인지 국군인지 쓴 총알이
천지개벽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의 몸을 꿰고 들어가 집을 짓고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탐도 몰랐던 것이다
체 몸 속에 구산선문 대도량과
산하종생 서원보전 기동뿌리와
쇠불이들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차마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진즉 무너졌을 터인데
탐은 재가 탐이라는 걸 모르고
천년을 서 있었던 것이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며 순결한 가슴이어> 중에서

이상국 시인은... 강원 양양 출생. 1976년 <심상>으로 등단. 시집 <우리는 읍으로 간다>, <집은 아직 따뜻하다> 등.

동국대 불교대학원 통합인가 세분화인가?

불교대학발전위 10일 토론회... 전공 방안 놓고 격론

세계적인 불교학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조계종립대학 대학원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까.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원회(위원장 영담)와 불교대학(학장 계환)은 12월 10일 동국대 본관에서 '동국대 불교대학 일반대학원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국대 명예교수인 현각 스님(불교대학발전위원)이 불교대학 일반대학원 교과과정과 편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현각 스님이 제안한 일반대학원 개선방안은 학과 통합과 유사강좌 통폐합을 비롯해 교수당 대학원 강좌 수 축소 등이다. 전임이상 교수들이 축소된 강좌만큼 일반 불교교양강좌를 맡는 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현각 스님은 개선안에서 학부제로 변경된 불교대학과 같이 대학원도 불교학과로 개칭하고 불교학·인도철학·선학전공으로 나눌 것을 주장했다.

스님은 각 전공간 개설강좌에서 중복된 부분이 많으며 무분별한 유사강좌 난립으로 외래강사 채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강사 채용에 있어서는 불교대학원을 나온 출신들이 배제되고 원광대 등 타교 출신과 태고종 스님도 강의에 나서고 있음이 지적됐다.

현각 스님은 2013년도 2학기부터 불교학전공 8과목(석사 4과목/박사 3과목), 인도철학전공 5과목(석사 3과목/박사 2과목), 선학전공 5과목(석사 3과목/박사 2과목) 등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또 특정 교수와의 관계로 종합시험에 지

속적으로 낙제하는 사안을 막기 위해 국내 저명학술지에 석사 100%, 박사 200%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도 가능케 하는 구제제도 제시됐다.

또 1996년 개설된 '자아와 명상'을 불교문화재 등 불교문화를 알리는 '불교와 문화' 강좌로 변경하는 안도 담겼다.

스님은 "종립학교 건학이념을 알고자 만든 자아와 명상이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문화재 60%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를 비롯해 불교문화를 알리는 '불교와 문화'로 강좌를 변경하고 전

현각 스님 "통폐합해 내실화"
반대 교수들 "세분화가 대세"
'불교사회복지학과' 귀속 결론

임교수들도 일반교양강좌 지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불교대학 교수진들은 반대입장을 밝혔다. 강좌 수 축소 시 강좌당 학생 수 증가로 인한 지도 미흡과 전문성 제고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

논평자인 정승식 교수는 "개설 교과목이 축소되면 강좌당 수강생이 과다됨으로 교수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교대학 불교학과장인 우제선 교수는 "이번 학기에도 38명이 입학해 학생들 사이에서 강좌 당 수강생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회에서 교수단 대학원 강좌를 2강좌 요청하려 했으나 오히려 축소한다는 개선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원회는 12월 10일 대학원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공통합과 세분화를 놓고 교수간 격론이 펼쳐졌다.

고영섭·황순일·김중욱 교수 등도 대학원 통합 방침이 전문성을 저해하며 연구 지도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모았다.

고영섭 교수는 "불교학, 인도철학, 선학 연구방법은 서로 다른 만큼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며 "불교대학 학부생의 전과를 허용하고 오히려 자유경쟁을 시켜야 한다. 또 조계종 재직 스님만 교수가 될 수 있는 선학과도 재가자에 문호를 열고 경쟁을 통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내에서 과소속 학생들의 시위가 진행 중인 사회복지학 전공의 '불교사회복지학과' 변경에 대한 대책마련도 지적됐다.

불교사회복지학과는 당초 불교사회복지전공으로 졸업생 취업을 위한 복수전공 과목으로 개설된 이후 사회복지학전공으로 변경된 바 있다. 불교대학에서는 당초 불교복지 성격에 맞게 명칭 변경 및 과목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각 스님은 "불교사회복지학과" 명칭에 맞게 내년부터 '불교학입문' '선의 이해'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등 5과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대학 교수들은 불교사회복지학과 명칭변경에 동의하며 사회복지전공으로 변경된 데 대한 책임을 지켰다. 또 이날 자리에서는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융합학과 내 강좌와 불교대학의 중첩 문제도 지적됐다.

불교대학학장 계환 스님은 "불교학술원이 연구프로젝트 수주를 이유로 교육기관을 운영·개설한 강좌가 불교대학의 강좌와 중복돼있다"고 말했다.

이날 불교대학발전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은 "토론회 의견 등을 수렴해 개선안을 다듬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원회는 의견수렴과정을 몇차례 갖고 차기 법인 이사회 회의에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계획적 종단 음해는 엄벌할 것”

인터뷰- 조계종 7대 호계원장 일면 스님

"자신의 임의대로 토지를 매각한다던가, 계획적으로 종단을 음해해 화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것입니다."

조계종 신임 호계원장 일면 스님은 12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호계원 운영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종단 화합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유연성도 함께 가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면 스님은 "평소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화합을 권한다"면서 "누구나 살면서 실수는 하는 법이다. 호계원장이 물명해서는 안되겠지만, 화합하고 조정할 수 있다면 이 역할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항상 문제가 되는 애매한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총무원 호법부와 조·재신 호계위원, 중앙총회 호법분과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스님은 "양형기준이 뚝뚝뚝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무엇보다 종단 호법과 관계되는 스님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당장 3월 총회에서는 힘들겠지만, 올해 안에 성과를 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종단 관례집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무원장 스님에게 건의해서 관례집을 만들도록 하겠다.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을 받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전임 원장인 범등 스님이



1967년 10월 21일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제13대 중앙총회의원과 제25교구본사 불선사 주지, 군종특별교구장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11월 6일 제192회 정기중앙총회에서는 제7대 호계원장에 선출됐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너무 잘해서 걱정된다"며 "원칙과 소신을 따르라'는 범등 스님의 충고에 따라 업무를 보겠다"고 밝혔다.

명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일면 스님은

천태종 부장급 인사 단행
총무부장 월도 스님 등 7명

천태종 총무원(총무원장 도정)이 제 16대 집행부를 이끌 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천태종은 12월 12일 총무부장에 월도 스님(분당 대광사 주지·사진)을 비롯해 △교무부장 도용 스님(춘천 삼운사 주지) △교육부장 갈수 스님(강릉 삼가사·동해 삼락사) △재무부장 월중 스님(원주 성문사 주지) △사회부장 보광 스님(김천 금강사 주지) △규정부장 갈지 스님(마산 삼락사 주지), 종의회 사무처장은 갈웅 스님(여수 장덕사·벌교 흥교사)이 각각 임명됐다. 신임 부장단은 12일 이후 종정 도용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주일 기자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입종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Table listing various positions and names within the Korean Buddhist Association, including roles like Director, Vice Director, and various department heads.